

초기 士林派의 山寺와 仙境 인식과 그 의미*

- 山水遊記와 紀行詩를 중심으로 -

김종구**

Ⅱ 차례 Ⅱ

- I. 서론
- II. 초기 士林派가 본 賢人들의 山寺와 仙境에 대한 인식
- III. 士林派의 同人 및 학단 형성
- I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기 士林派의 山寺와 仙境 인식을 山水遊記와 紀行詩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초기 士林派는 山寺와 仙境을 최치원과 더불어 先賢의 독서 및 수양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賢人의 은일공간으로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수유람과 문학창작의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초기 士林派의 山寺와 仙境 인식은 이후의 士林派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士林을 결속시켜 同人을 형성하였고 山水에 노니는 풍류적 문화공간과 학단을 형성하였다.

주제어 : 초기 士林派, 山寺, 仙境, 山水遊記, 紀行詩, 독서 및 수양 공간, 은일공간, 同人

* 본 논문은 한국문학언어학회·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에서 주최한 2015년 한국문학언어학회 제2차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고 이후 수정·보완하였다.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I. 서론

士林派는 勳舊士人에 대항하여 등장한 지식인 집단이다.¹⁾ 초기 士林派 중, 佔畢齋 金宗直(1431-1492)의 학단은 영남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김종직에 관해 『국조인물고』는 ‘단아하고 성실하여 거짓이 없고 학문의 연원이 있다.’²⁾라고 하였다. 그를 중심으로 수많은 문하생이 모여들었고 함께 학문을 연구하였다.

본 논의는 초기 士林派, 김종직·秋江 南孝溫(1454-1492)·濯纓 金駟孫(1464-1498)·一蠹 鄭汝昌(1450-1504)을 중심으로 한다. 그들이 유람을 하고 남긴 기록, 즉 山水遊記와 紀行詩를 통해 본 先賢과 당대 賢人의 山寺와 仙境에 대한 공간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들은 지리산을 유람하고 남긴 산수유기가 많다. 그 선두로 김종직은 『유두류록』(1472)을 남겼고, 남효온은 『지리산일과』, 『유천왕봉기』(1487)를 남겼고, 김일손은 김종직의 제목을 피휘하여 『속두류록』(1489)을 남겼다.

문화공간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는 정우락의 『조선시대 ‘문화공간-영남’에 대한 한문학적 독해』³⁾가 있다. 이 논의는 조선시대의 영남을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인식하고, 이를 한문학적 측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읽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거시적·집중적으로 다룬 것이다. 사찰 문화공간에 관한 논의는 김갑기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사찰』⁴⁾이 있다. 이 논의는 사찰제영

1) 이민홍, 「사림파의 한문학과 성정미학」, 『대동문화연구』2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2, pp.23-47. 참조

2) 「김종직」, 국역 『국조인물고』 참조

3) 정우락, 「조선시대 ‘문화공간-영남’에 대한 한문학적 독해」, 『어문론총』57, 한국문화언어학회, 2012, pp.323-354.

4) 김갑기, 「문화공간으로서의 사찰-사찰제영시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35, 한국사상문화학회, 2006, pp.243-261.

시를 중심으로 분석해 사찰이 유교와 불교가 습합된 종합문화공간임을 논증하고 있다.

그 외, 지리산 청학동에 주목한 논의가 있다. 강정화의 『선현들의 청학동 유람』⁵⁾과 김동협의 『15-16세기 지리산 遊覽錄에 나타난 靑鶴洞』⁶⁾과 손찬식의 『靑鶴洞 詩에 表象된 神仙思想』⁷⁾ 등이 있다. 강정화는 유람코스를 중심으로 논의한 것이고 김동협은 청학동, 공간에 대한 고증과 유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손찬식은 고려조 이인로의 『청학동기』부터 조선후기 청학동 관련 한시까지 시 작품을 개관하고 있다.

先賢들의 유람은 산의 정상을 등산할 뿐만 아니라 산 주변의 여러 곳을 노닐며 즐기기도 하였다. 특히 지리산은 많은 山寺와 아름다운 仙境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의는 쌍계사와 단속사 등의 山寺와 仙境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이를 중심으로 초기 士林派가 山寺와 仙境을 유람하고 남긴 산수유기⁸⁾와 기행시⁹⁾에 나타난 先賢과 당대 賢人의 공간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후진 士林에게 이어지는 山寺와 仙境에 대한 공간인식을 살펴 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5) 강정화, 『선현들의 청학동 유람』, 『선비문화』22, 남명학연구원, 2012, pp.122-134.

6) 김동협, 『15-16 세기 지리산 遊覽錄에 나타난 靑鶴洞』, 『語文論集』56, 중앙어문학회, 2013, pp.127-147.

7) 손찬식, 『靑鶴洞 詩에 表象된 神仙思想』, 『인문학연구』86,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pp.57-89.

8) 산수유기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외의 가야산 등은 참고자료로 한다.

9) 기행시는 김종직의 『遊頭流紀行』과 남효온의 『紀行 二十四首』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김일손과 정여창이 산수유람을 하고 남긴 기행시와 관련 작품을 참고자료로 한다.

Ⅱ. 초기 士林派가 본 賢人들의 山寺와 仙境에 대한 인식

士林派의 선구자는 밀양의 金宗直, 현풍의 金宏弼, 함양의 鄭汝昌, 청도의 金駟孫이다. 이들은 16세기 조선 중기 士林들이 새롭게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다. 士林은 지방에 정치적 거점을 마련하고 유학을 학문적 토대로 하여 향촌사회의 질서를 잡아나가게 된다.¹⁰⁾ 士林派의 同人 형성과 학단 형성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山寺와 仙境에 대한 유람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산수유람을 통해 자연스러운 脣습이 이뤄졌고 학단이 형성되었다.

1. 최치원과 先賢의 독서 및 수양 공간

한유는 “사람이 고금의 도리를 통하지 못하면, 말과 소에 사람 옷을 입혀 놓은 것과 같다.”¹¹⁾라고 하여 독서와 학문의 중요성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 先賢들 또한 독서와 수양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지극했을 것이다. 『예기』¹²⁾에서 밝히고 있는바, 독서에 집중하기 좋은 계절은 겨울이다. 그리고 독서에 집중하기 좋은 공간도 있을 수 있다. 초기 士林派가 바라본 先賢의 독서와 수양¹³⁾ 공간을 확인해 보자.

(가) 절 안의 동북쪽 모퉁이에 방 한 칸이 있으니, 文昌侯 崔致遠이 독서하던 방이다.¹⁴⁾

10) 정우락, 『남명학파의 문학적 상상력』, 역락, 2009, p.21.

11) 한유, 『한창려집』6, 『符讀書城南』, “人不通古今, 馬牛而襟裾.”

12) 『예기』, 『문왕세자』, “春誦 夏弦 大師詔之 瞽宗 秋學禮 執禮者詔之 冬讀書 典書者詔之 禮在瞽宗 書在上庠.” 참조

13) 독서는 수양론 중, 격물치지의 가장 중요한 도구와 방편이다(『근사록』3, 『致知』에 잘 나타나고 있다.).

(나) 절 뜰에 매화 두 그루가 있으니, 前朝의 政堂文學 姜通亭이 손수 심은 것인데 매화나무가 지난 4, 5년 전에 말라죽어 그 증손 用休 선생이 다시 심었다.¹⁵⁾

(다) 누각에서 앞뜰을 내려다보니 매화나무 두어 그루가 있는데, 政堂梅라고 전하였는데 바로 文景公 姜孟卿의 조부 通政公이 젊은 시절, 이 절에서 독서할 적에 손수 매화나무 한그루를 심었고 뒤에 급제하여 벼슬이 정당문학에 이르러 이 이름을 얻게 되었다. 자손들이 대대로 북돋워 번식시켰다고 한다.¹⁶⁾

斷俗寺는 『三國遺事』 제5권 피은 제8항 신충괘관조와 『삼국사기』 제9권 신라본기 경덕왕 22년 8월에 창건 시기와 창건자¹⁷⁾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748년(경덕왕 7) 대내마 李純이 창건하였고, 763년(경덕왕 22) 信忠이 중건하였다고 한 설이 일반적이다.¹⁸⁾ 단속사는 보물 제72·73호인 단속사

14) 남효온, 『추강집』6, 『智異山日課』, “寺內東北隅, 有一室, 崔文昌讀書之房.”

15) 남효온, 『추강집』6, 『智異山日課』, “寺庭, 有梅花二株, 前朝政堂文學姜通亭手種, 梅樹去四五年前枯死, 其曾孫用休先生繼種者.”

16) 김일손, 『탁영집』5, 『續頭流錄』, “臨前庭有梅數條, 相傳政堂梅, 乃姜文景公之祖通亭公, 少讀書於此, 手植一梅, 後登第, 官至政堂文學, 遂得名, 其子孫世封植之云.”

17) 단속사의 창건에 관한 논의는 박용국, 『지리산 단속사, 그 끊지 못한 천년의 이야기』 (보고사, 2010, pp.99-123. 참조)에 잘 나타나 있다.

18) 단속사 창건과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이기백, 「경덕왕과 단속사·원가」,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pp.216-226.

이종문, 「『삼국유사』 「신충괘관」조의 ‘전 삼국사’에 대하여」, 『한국고대사연구』14, 한국고대사학회, 1998, pp.447-466.

송희준, 「단속사의 창건 이후 역사와 폐사과정」, 『남명학연구』9,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9, pp.399-425.

박인희, 「신충괘관과 원가연구」, 『신라문화』2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6, pp.299-321.

이승남, 「삼국유사 신충괘관조에 나타난 일연의 서사적 시각」, 『한국사상과 문화』40,

지동·서 삼층석탑과 孤雲 崔致遠(857-?)이 썼다고 추증하고 있는 ‘廣濟
岳門’ 刻石과 神行禪師碑·坦然禪師碑·姜淮伯의 政堂梅로 유명하다.
이는 김일손과 남효온의 산수유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와 (나)는 남효온의 『지리산일과』이다. 通亭이 젊어서 斷俗寺에서
글을 읽을 적에 매화 한 그루를 뜰 앞에 심고, 절구 한 수를 지었는데, “한
기운이 순환하여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하늘의 뜻을 남일 전에 편 매화에
서 볼 수 있도다. 은정 외 국맛을 조절하던 열매가, 부질없이 산중에서 떨어
어지고 또 피는구나.”¹⁹⁾라고 하였다. 남효온은 매화를 보며 강희백이 젊어
서 단속사에서 글을 읽고 과거에 급제한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 남효온은
지리산을 유람하면서도 독서²⁰⁾를 하였기에 이러한 독서공간에 대한 관심
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다)의 김일손의 경우에도 통정의 정당매를 확인하였고 단속사의 독서
공간도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단속사를 유람하고 나아가 『정당매시문후』
을 짓게 된다. 그는 “옛날 영남에서 포의로 있을 때 두류산을 구경하러 가
면서 먼저 단속사에 들렀다. 그 사찰 안에는 누각이 있고 누각 앞에는 매화
두 그루가 있었는데 길이는 할 길 남짓 되었으며 그 밑둥치는 반 척 정도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²¹⁾라고 하여 정당매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김일손은 단속사를 강희백의 정당매와 독서공간²²⁾으로 강하게 인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pp.45-68.

신종원, 『『삼국유사』 신충패관조의 몇 가지 문제』,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31, 동국
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0, pp.47-67.

19) 『해동잡록』2, 『강희백』, “一氣循環往復來, 天心可見臘前梅, 直將股鼎調羹實, 謾向
山中落又開.”

20) 남효온이 유람 중 독서를 한 논의는 김종구, 『유산기에 나타난 유산과 독서의 상관성
과 그 의미』(『어문론총』5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pp.125-157.)를 참조바람.

21) 김일손, 『탁영집』1, 『政堂梅詩文後』, “昔年落魄嶺表, 將遊頭流, 先抵斷俗寺, 中有
古樓, 樓前有梅兩株, 長丈餘, 下有古查, 其不減者半尺.”

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장년이 되어서야 영남 지역을 유람할 수 있었다. 신라 말기의 문창후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돌아와 실의에 빠져 그 아름다운 山水를 탐력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는데 그가 작고한 곳은 바로 伽倻山이라는 점을 생각하였다. 이 산은 반드시 경치가 매우 기이하고 뛰어나 神仙과 隱士가 머물렀다. 文昌의 백세후에는 또한 반드시 高人과 道士들이 그 산중에서 편안히 살고 있다가 혹 그 이름마저 없어졌을 것이므로 나는 그곳에 한번 遊覽하여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려고 하였다.²³⁾

(마) 금년 봄에 金大猷가 함천에서 청도에 있는 나를 방문하여 伽倻山 구경을 약속하였다. 몇 달이 지난 뒤 행장을 갖추고 대유를 찾아 길을 나섰다. 수재 이회와 함께 다리를 따라 무릉동을 건너서 홍류동에 들어가고, 또 致遠臺를 지나서 海印寺에 도착하였다. 이 때 祖法師는 마침 사찰을 새로 짓고 있었다. 문창이 글 읽던 곳이 어디냐고 물었으나 그 곳을 알 지 못하였다.²⁴⁾

위의 자료는 김일손이 가야산을 유람하고 남긴 『釣賢堂記』이다. 김일손

22) 김일손은 1480년, 17세에 처음 金宗直의 문하에서 수학을 시작했다. 이때 鄭汝昌, 金宏弼과 道學으로서 교분을 쌓았다. 1481년 18세에는 스승을 뵈고 한퇴지의 문집을 받아 글 읽기를 1000여 회에 이르도록 끊이지 않았다. 이 후 ‘동국의 한창려’라고 중국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다. 김일손이 왜 독서와 그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3) 김일손, 『탁영집』3, 『釣賢堂記』, “壯遊嶺南常念, 崔文昌至自唐, 失意羅季, 其所探歷佳山好水, 不一其所, 而其終也, 乃伽倻山, 則斯山也, 必有奇勝絕倫, 而仙逸者留焉, 文昌百歲之後, 亦必有高人道士, 棲遲偃仰於其中, 而或泯其名焉, 欲一遊而問其人.”

24) 김일손, 『탁영집』3, 『釣賢堂記』, “今年春, 金大猷自治城訪我於鰲山, 約觀伽倻, 居數月, 理兩屐, 尋大猷策筇, 而俱李秀才洄, 從橋渡武陵洞入紅流, 過致遠臺, 抵海印寺, 時祖法師, 方新寺宇, 問文昌讀書堂, 則莫知其所.”

은 최치원이 아름다운 山水를 찾아다닌 곳이 많은데 생을 마감한 곳이 가야산이라는 점과 그 후 隱士와 賢人이 많이 거쳐 했던 점이 가야산 산수유람의 동기였다. 즉, 김일손은 가야산 산수유람을 통해 ‘최치원’이라는 인물과 山寺・仙境과 隱士・賢人의 거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는 치원대, 해인사에서 최치원이 글을 읽었던 독서당을 제일 먼저 찾아보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그는 최치원에 관해, “만약 내가 고운의 세상에 났다면, 마땅히 그 지팡이와 신발을 받들고 시종하여 고운으로 하여금 외롭게 되어 부처를 배우는 무리와 더불어 짝이 되게 하지 않을 것이요.”²⁵⁾라고 하였다. 김일손은 山寺를 불교의 수행의 도장이 아니라 유가의 수양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최치원에 대한 평을 통해 잘 드러난다. 또 최치원 문하에 들어 문장과 태평한 정치를 펴고자하는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바) 兮昔新羅代 그 옛날 신라 시대의,
 高僧元曉居 고승 원효 살던 이곳.
 靑山元不俗 청산은 본래 속되지 않은데,
 雨後靑更舒 비 온 뒤 푸른 빛 더욱 펼쳤네.
 茫茫千萬古 아득한 천만고의 옛일이건만,
 代序一談餘 한번 담론에 시대를 뛰어넘네.
 神通不生滅 신통은 본래 생멸하지 않으니,
 法象應如初 법상이 응당 처음과 같으리라.
 栢渡向何處 배도 화상은 어디로 가셨는가,
 如聞響木魚 마치 목어 소리 들리는 듯하네.²⁶⁾

25) 김일손, 『탁영집』5, 『續頭流錄』, “使某生於孤雲之時, 當執杖屨而從, 不使孤雲蹢躅與學佛者爲徒.”

26) 남효온, 『추강집』2, 『逍遙山 經元曉舊居 削木題詩』.

남효온은 周遊天下하여 많은 기행시를 남겼다. 위 시는 逍遙山の 元曉가 머문 옛터를 지나며 나무를 깎아 적은 것이다. 소요산은 楊州에서 북쪽으로 40리 되는 곳으로, 大灘津에 20리 못 미쳐서 있으며, 王方山의 서쪽 기슭에 있는 別山이다.²⁷⁾ 소요산은 豐壤宮·白雲臺·元曉臺·逍遙寺·元曉井 등이 있고 山水가 수려한 곳이다. 소요사의 壁記와 牧庵의 기문에 원효가 이 산에 머문 기록이 있다.

남효온은 고승 원효가 살면서 수행을 하여 그 진리가 만고에 뻗어 나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배도는 晉·宋의 高僧이고 木魚는 불경을 읽을 때 두드리는 기구이다. 수행자는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처럼 수도해야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것이다. 남효온은 배도와 목어에 빗대어 원효의 진리 탐구에 대한 열정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儒子인 남효온은 원효처럼 범인에서 성인의 영역에 들어가고자 했다.

남효온의 학문을 대하는 방법은 “목적하는 바가 없이 행하는 것이 義이고, 목적하는 바가 있어 행하는 것이 利이다.”²⁸⁾에 근거하고 있다. 그의 학문에 대한 태도는 『宿江浦蘊廬 得落月低金盆 叔度得湖水終夜明 分韻各賦』五首에 “학문은 요컨대 작위가 없어야 하고, 도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데 있네. 더욱 밝으려고 힘써서도 안 되고, 남을 제압하려 힘써서도 안 되지. 요컨대 몸속의 마음 수렴해야 하니, 몸 밖으로 분분히 치달리기 때문이라. 그러면 맑은 강에 옛 거울 열리고, 흰 달이 동이처럼 둥글게 되리라.”²⁹⁾라고 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7) 허목, 『기언』 별집9, 「逍遙山記」, “逍遙山, 楊州治北四十里, 不及大灘津二十里, 爲王方西麓別山.”

28) 『근사록』7, 「出處」, “無所爲而爲之者義也, 有所爲而爲之者利也.”

29) 남효온, 『추강집』2, 「宿江浦蘊廬 得落月低金盆 叔度得湖水終夜明 分韻各賦」, “學要無所爲, 道在不見聞, 不須務彌明, 不須務壓人, 要收腔裏心, 形外馳紛紛, 澄江開古鏡, 白月圓如盆.”

남효온은 무슨 목적이 있어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학문을 하고자 하였다. 그는 벼슬에 관심이 없었고, 남을 제압하는 위치에 오르고자 하지 않았다. 남효온은 오직 마음을 수양하여 본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원효의 진리에 대한 태도는 이규보가 『八月二十日 題楞迦山元曉房』에서 “차물 길던 샘에 고인 수정 같은 물, 마셔 보니 그 맛이 젖과 같구나.”³⁰⁾라고 한 것처럼 순수한 물과 같은 것이었다. 남효온은 원효가 불경을 읽고 수행한 옛 공간을 통해 先賢의 의식을 좇아가고 있었다. 남효온은 억지로 힘써 얻으려고 하지 않았고 학문에 대한 진실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自得하고자 한 것이었다.

曹偉(1454-1503)의 『독서당기』에 “龍山の 작은 암자가 이제 公廨에 소속되어 폐기되었으니, 잘 수리한다면 상개하고 유광하여, 藏修·遊息하는 장소로서 이곳이 가장 마땅하옵니다.”³¹⁾라고 했듯이 山寺는 先賢의 독서 및 수양처로 알맞은 공간이었다. 초기 士林派가 본 山寺와 仙境은 선현의 독서 및 수양 공간이었던 것이다.

명산의 山寺와 仙境은 산수가 아름답고 지극히 고요하고 조용한 곳이다. 山寺와 仙境은 학문을 위한 기본적 실천공간으로 가장 적합한 곳이었다. 초기 士林派는 내적으로 학문을 탐구하고 외적으로 그 도를 실천을 하고자 하는 도학자에 가깝다. 先賢의 공부처와 행적을 좇아 초기 士林派의 역량으로 삼고자 했다. 구도자의 길에 대한 근원을 탐구하고 나아가 성현의 영역에 들어가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30) 이규보, 『동국이상국문집』9, 『八月二十日 題楞迦山元曉房』, “茶泉貯寒玉, 酌飲味如乳.”

31) 조위, 『매계집』4, 『讀書堂記』, “龍山小菴, 今係公廨棄之矣, 修而葺之, 爽塏幽曠, 藏修游息, 此最爲宜.”

2. 賢人의 은일공간

초기 士林派는 산수유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김종직은 同人 및 제자와 함께 유람하는 것을 즐겼고 그 기록이 다수 남아있다. 김일손의 『조현당기』를 살펴보면 김종직과 그 同人들이 유람하고 남긴 시편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士林派는 山寺와 仙境을 賢人이 은일하고 싶은 이상적 공간으로 여기고 있었다.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해공이 또 그 동쪽을 가리키면서 雙溪寺洞이라고 하였다. 崔孤雲이 일찍이 이곳에서 노닐었으므로 刻石이 남아 있다. 고운은 세속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었다. 氣概를 지닌 데다 亂世를 만났으므로, 中國에서 볼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東土에서도 용납되지 않아서, 마침내 정의롭게 속세 밖에 은둔함으로써 깊고 그윽한 溪山의 지경은 모두 그가 遊歷한 곳이었으니, 세상에서 그를 신선이라 칭하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겠다.³²⁾

위의 기록은 김종직이 생각하는 최치원에 대한 인물평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종직은 최치원이 난세에 태어났지만 세속에 얽매이지 않는 기상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최치원이 지리산 山水의 아름다운 곳에서 신선처럼 노닐 모습을 비유하고 있었다. 김종직은 『贈蘿月軒明上人』에서 “삼삼을 간파하고 때로 선정을 나와서는, 다시 맑은 음료 가지고 고운을 조문하네.”³³⁾라고 하여 최치원을 선망하고 있었다. 비록 김종직이 나월현 명상인, 僧에게 주었던 시이지만 그는 간접적으로 최치원이 노닐 逍遙處를 회상하고 있었다.

32) 김종직, 『점필재집』2, 『遊頭流錄』, “又指其東曰, 雙溪寺洞也, 崔孤雲嘗遊于此, 刻石在焉, 孤雲, 不羈人也, 負氣槩, 遭世亂, 非惟不偶於中國, 而又不容於東土, 遂嘉遯物外, 溪山幽閑之地, 皆其所遊歷, 世稱神仙, 無愧矣.”

33) 김종직, 『점필재집』8, 『贈蘿月軒明上人』, “勘破三三時出定, 更將清料弔孤雲.”

김종직이 생각한 쌍계사는 온전히 최치원에 대한 것뿐이었다. 그는 「贈野雲 吾方外友螺上人之門徒也 將謁其師於伽倻 遂入頭流 今來告別 袖金箋一軸求詩 因次四佳 益城兩相韻 贈之」에서 “어찌하면 스님을 따라 다시 더듬어 찾아서, 최고운의 유적을 좇아 쌍계사를 방문해 볼꼬.”³⁴⁾라고 하였고 쌍계사가 곧 최치원의 逍遙處라고 생각하였다. 김종직은 「무릉교」에서도 가야산 해인사 일대의 무릉교와 최치원의 소요처를 형상화하고 있었다.

青鶴仙人何處棲	청학 탄 신선은 어느 곳에서 사고,
獨騎青鶴恣東西	홀로 청학을 타고 동서로 마음껏 다니겠지.
白雲滿洞松杉合	흰구름 골에 가득하고 솔과 삼나무 어우러지니,
多少遊人到自迷	수많은 노는 이들 들어오면 절로 길을 헤매네.
千載一人韓錄事	천 년의 세월 속에 일인자인 한 녹사는,
丹崖碧嶺幾遨遊	붉은 절벽 푸른 고개서 얼마나 노닐었던고,
滿朝卿相甘奴虜	조정 아득한 경상들은 노예 됨을 감수하는데,
妻子相携共白頭	처자들을 거느리고 늘그막까지 함께하였네.
雙溪寺裏憶孤雲	쌍계사 안에서 최고운을 생각하니,
時事紛紛不可聞	분분하던 당시의 일을 들을 수가 없구려.
東海歸來還浪跡	동해에 돌아와서 도리어 유랑을 했던 것은,
祇緣野鶴在鷄群	다만 야학이 군계 속에 끼었기 때문이로다. ³⁵⁾

위의 자료는 김종직이 지리산을 유람하고 기행시를 쓴 「遊頭流紀行」 중 「靈神菴」의 일부이다. 김종직은 한유한과 최치원의 고사를 떠올리며 그들

34) 김종직, 『점필재집』23, 「贈野雲 吾方外友螺上人之門徒也 將謁其師於伽倻 遂入頭流 今來告別 袖金箋一軸求詩 因次四佳 益城兩相韻 贈之」, “安得從師更探討, 孤雲遺躅訪雙溪.”

35) 김종직, 『점필재집』8, 「靈神菴」, 「遊頭流紀行」.

의 삶과 행적을 회상하고 있었다. 한유한은 지리산에 은거하여 지조와 행실이 고상하였고 세상일에는 간섭하지 않았고 오로지 수양과 절조를 지키며 세상일에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³⁶⁾ 김종직은 한유한이 이상적 세계, 무릉에 은거하며 지조와 절개를 지킨 공간을 확인하고 있었다. 한유한은 현실정치의 혼란함을 피해 이상적 은일세계를 지향하며 나아간 것이다.

나아가 김종직은 최치원이 세상을 피해 은거하면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였을 것이다. 청학동에 대한 인식은 김종직의 『七月二十八日 禱雨龍遊潭』에서도 잘 나타난다. “거주민들이 스스로 단결하여, 시냇가에 뗏집을 지어 사는구려. 청학동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마을이 바로 그 곳인가 싶구나.”³⁷⁾라고 하여 은자의 이상적 공간, 청학동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儒子가 청학동에 은거하여 자유롭게 학문을 하고 逍遙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종직은 『再登天王峯』에서 “그립기도 하여라 청학동에는, 천 년토록 신선의 자취 숨겨졌기에. 길이 울으며 높은 비탈 내려가니, 마치 청동을 만날 것만 같구나.”³⁸⁾라고 하여 청학동의 동자를 만나고 싶은 바람을 하게 된다.

동구를 다 지나서 壤堂이라는 한 마을에 들어갔다. 집집마다 큰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감나무와 밤나무가 뒤덮고 있었다. 사립문이나 닭과 개들이 영락 없이 무릉도원이나 朱陳村인 듯하였다.³⁹⁾

36) 『신증동국여지승람』 30, 『진주목』 참조.

37) 김종직, 『점필재집』 시집 7, 『七月二十八日 禱雨龍遊潭』, “居民自團結, 茅屋臨溪水, 舊聞青鶴洞, 茲村無乃是.”

38) 김종직, 『점필재집』 시집 8, 『遊頭流紀行』 『再登天王峯』, “懷哉青鶴洞, 千載祕仙蹤, 長嘯下危磴, 如將值青童.”

39) 남효온, 『추강집』 6, 『智異山日課』, “行盡洞口入一村, 曰壤堂, 家家戶戶, 鉅竹成林, 柿栗掩靄, 柴門鷄犬, 依然如武陵朱陳然.”

남효온은 단속사⁴⁰⁾ 인근의 壤堂마을을 朱陳村, 무릉도원으로 보고 있었다. 주진촌은 白居易의 『주진촌』 시, “서주의 고풍현에, 마을이 있으니 주진촌이라. … 한마을에 오직 두 성씨, 대대로 혼인하는구나(徐州古豐縣有村曰朱陳 … 一村唯兩姓 世世爲婚姻).”⁴¹⁾에서 나온 朱陳之好의 주진촌이다. 주진촌은 뽕나무·삼나무가 향기롭고, 소와 나귀가 자유분방하고, 산이 깊고, 풍속이 순박하고, 아이와 노인이 항상 즐거워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마을이다.

남효온은 깊은 산중에서 세상과 통하지 않고 평화롭게 대대로 살아가는 주진촌, 무릉도원으로 양당마을을 보고 있었다. 그 위쪽에 단속사가 있으니 이 또한 賢者가 은일하여 살만한 곳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다. 즉, 단속사 일대를 주진촌, 무릉도원의 주거지로 보아 賢人이 은거할 만한 곳으로 여긴 것이다. 그 또한 주진촌, 무릉도원과 같은 곳에서 은자적 삶을 지향하고 있었다. 다음의 시를 살펴보자.

屋角懸鍾信風動 추녀 끝에 달린 종은 바람 따라 움직이고,
蒼苔白晝濕淋漓 푸른 이끼는 대낮인데도 축축이 젖어 있네.
山深秋葉春猶在 산이 깊어 가을 잎이 봄에도 남아 있는데,
老子終朝不賦詩 늙은 이 몸 아침 다하도록 시 짓지 못하네.⁴²⁾

남효온은 山水를 좋아하여 천하를 주유하였다. 그의 발자취가 전국에 산재하고 있다. 위의 시는 『山房』이다. 어느 山寺·山村·山房인지 알 수 없으나 남효온이 깊은 산, 한가롭고 평온한 곳에 隱逸하여 시 짓는 모습을

40) 단속사는 절의 명칭을 통해서도 세상과의 거리를 두고 그 이상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위의 단속사 관련 논문 참조).

41) 백락진, 『백향산시집』10, 『朱陳村』, 참조.

42) 남효온, 『추강집』3, 『山房』.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지리산일과』를 살펴보면 단속사가 아닌 다른 사찰, 쌍계사 등을 유람하면서도 은일처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효온은 “쌍계사 위 佛日庵 아래에 靑鶴淵이 있으니, 여기가 청학동임은 의심할 것이 없다.”⁴³⁾라고 하였다. 그의 은일처에 대한 관심은 청학동에 대한 정확한 위치 고증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일손 또한 과거의 최치원과 현재의 隱者·高僧, 螺花尙이 거주하는 곳으로 가야산을 보고 있었다. 즉, 賢者가 은거하는 仙境, 은일적 공간으로 보고 있었다. 김일손은 지리산을 유람할 때에도 “동구를 벗어나 돌아보니 물을 안아주고, 산은 감싸주고, 집은 깊숙하고, 지세는 막히어 참으로 隱者가 살 만한 곳이다.”⁴⁴⁾라고 하였다. 그의 隱者와 은일 공간에 대한 동경을 관찰할 수 있었다.

김일손은 1490년에 남효온과 함께 김시습을 방문한다. 김시습은 김일손과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許交하여 교유하였다. 김일손은 김시습, 남효온과 밤새 담소를 하고 북한산 백운대를 오르고 도봉산에 이르기까지 5일 동안 같이 지내고 헤어졌다. 하지만 이 날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김일손은 1491년에 문에 능하고 기절이 있는 조지서를 방문하여 山水 좋은 곳을 노닐기도 하였다. 조지서는 1495년, 연산군 1년에 창원부사로 파견되었다가 곧 사직하고, 지리산에 은거하여 학문에 전념하였다.

김일손은 비록 벼슬에 나아갔던 적이 있지만 아름다운 산수에 은거하여 학문을 하고자 하였다. 賢人과 은일 공간에 대한 관심이 그 근거다. 최치원을 비롯한 先賢, 당대의 훌륭한 高僧인 螺花尙, 당대의 賢人인 김시습·조

43) 남효온, 『추강집』6, 『지리산일과』, “雙溪寺上佛日庵下, 亦有靑鶴淵, 此爲靑鶴洞無疑矣.”

44) 김일손, 『탁영집』5, 『續頭流錄』, “出洞, 回望則水抱山圍, 宅幽而勢阻, 眞隱者之所盤旋也.”

지서 등이 隱者이었다. 김일손이 은일했던 賢人과 산수유람 및 은일공간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들처럼 되고자 희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초기 士林派는 정치적으로 勳舊派에 대립된다. 훈구파에 비해 정치적으로 소외되었기 때문에 지방의 산림에서 생활을 하였다. 그들은 비록 정치적으로 소외되었지만 고려 재지사족의 후손이 많았기에 경제적으로는 빈곤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학문에 대한 철저성과 완벽성을 가할 수 있었다. 즉 구도자의 길, 도학자의 길로 가기에 수월했던 것이다. 그 추구 대상이 바로 선현, 隱者의 학문태도와 같았던 것이다.

초기 士林派는 산수유람을 통해 先賢 및 隱者의 소요처를 직접 확인하고 그들이 지향한 은자적 삶을 직접 확인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릉, 주진촌 등의 仙境을 賢人이 은거할 만한 곳으로 여긴 것이다. 한편 초기 士林派는 先賢들이 지향한 이상세계의 공간,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先賢들의 삶과 실천에 대한 동경과 이상적 은일공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3. 士林의 산수유람과 문학창작의 향유공간

山寺와 仙境은 초기 士林派의 산수유람의 대상이 되었고 문학을 창작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김종직은 지리산을 유람하고 유람록을 남기고 기행시, 『遊頭流紀行』도 남기고 있었다. 남효온은 지리산 관련, 『智異山日課』와 전국 산하를 유람하고 남긴 기행시가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중 『紀行 二十四首』의 제목이 눈에 띈다.

(가) 携手扣雲關 서로 손 잡고 운관을 찾아드니,
塵蹤汚蕙蘭 속인의 발자국이 혜란을 더럽히네.
澗泉猶在笕 계곡의 샘엔 아직도 흙통이 있고,

香爐尙堆盤 향불의 재는 아직 향반에 쌓였구려.
 倚杖秋光冷 지팡이 기대니 가을빛은 썰렁하고,
 捫巖海宇寬 바위 오르니 온 세상 넓기만 하네.
 殷勤報猿鶴 은근히 원숭이와 학에게 알리노니,
 容我再登攀 내가 다시 오르기를 용납해다오.⁴⁵⁾

(나) 朝離靑鶴洞 아침에 청학동을 떠나와서,
 晚渡長湍水 저물 무렵 장단수를 건넜네.
 石壁開畫屏 바위벼랑 그림 병풍 펼쳐서,
 周遭二十里 이십 리나 두루 에워쌌도다.
 丹楓明石間 단풍은 바위 사이에 밝게 빛나고,
 渚草寒不死 물가 풀은 추위에도 죽지 않았네.
 鴻鳴暮江波 저문 강 물결 위로 기러기 울 때,
 客來駐行李 나그네 찾아와서 행장을 머무르네.⁴⁶⁾

김종직은 “직무에서 빠져 나와 높은 산에 올랐는데, 마침 좋은 시절이라 조물의 시기를 받았구려.”⁴⁷⁾라고 하여 산수유람의 간절한 뜻을 『中秋天王峯不見月』 시에서도 남기고 있다. (가)는 향적암에서 묵으며 지은 시이다. 先賢들은 유람 와중에 메모를 하거나 그 때 직접 시로 남긴다. 시 창작공간이 향적암이거나 유람을 마치고 돌아온 거처일 경우도 있다. 하지만 향적암이 시 창작공간 및 대상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김종직은 향적암 일대를 仙境이라 인식하고 원숭이와 학에게 천왕봉 오를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宿香積夜半開霽』에서도 笙鶴소리, 천 길 봉우리

45) 김종직, 『점필재집』 시집 8, 『遊頭流紀行』, 『香積庵無僧已二載』.

46) 남효온, 『추강집』2, 『紀行 二十四首』, 『其一』.

47) 김종직, 『점필재집』 시집 8, 『遊頭流紀行』, 『中秋天王峯不見月』, “抽身簿領陟崔嵬, 剛被良辰造物猜.”

의 밝은 가을 달을 묘사하며 仙境의 봉래와 영주를 회상하고 있다.

남효온은 지리산을 유람하고 남긴 『智異山日課』·『유천왕봉기』와 금강산을 유람하고 남긴 『유금강산기』와 개성을 유람하고 남긴 『송경록』 등이 있다. 그의 기행시는 100편⁴⁸⁾에 이르고 있으니 산수유람에 대한 관심과 문학창작에 대한 욕구도 지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나)는 仙境, 청학동을 유람하고 남긴 시이다. 청학동 인근의 山水·바위·풀·기러기 등을 묘사하여 仙境에 대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왕운사·용통사·구월산·청량산·천마산·성거산·치일암 등을 읊어 신선이 노니는 仙境을 노래하고 있다.

金剛之山高插天	금강산의 높기는 하늘을 찌를 듯한데,
白石亭亭露秋骨	우뚝 솟은 바위들은 가을 뼈를 드러낸 듯도,
搏桑遠影暗句引	박상의 먼 그림자 은연중에 끌어들이어,
日觀孤標共嶠峯	일관봉 높은 표지와 함께 우뚝하구려.
我昔討奇凌絕頂	내 옛날 기이한 곳 찾아서 절정에 올라,
手闢雲關敲石室	손으로 구름 헤치고 석실문을 두드렸는데. ⁴⁹⁾

김종직이 금강산을 유람하고 남긴 시, 『登金剛看日出』 중 일부이다. 김종직은 금강산을 유람하면서도 仙境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었다. 石室은 신선이 산다는 石穴이다. 仙人 廣成子が 崆峒山 석실에 살았고 그 외 많은 仙人들의 석실이 존재한다. 금강산은 바위의 형상과 기상이 남다르기 때문에 더욱 석실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직은 仙境에 감화되었고 시로 형상화하고 있었다.

48) 손찬식, 『추강 남효온의 시세계』, 『어문논집』33, 민족어문학회, 1994, p.287. 참조.

49) 김종직, 『점필재집』 시집 2, 『登金剛看日出』.

김종직은 제자들과 산수유람을 빈번히 다니며 문학을 창작하였다. 제자 선원 김맹성과 산수유람을 하게 된 과정을 시로 남기고 친히 유람을 하게 된다. 그 시는 『善源來訪』, 『與善源遊甘川西岸美中集童冠賚酒肉至飲噓間善源有詩次韻』이다. 그는 김맹성에게 준 시, 『和善源在星州見寄』를 통해 보면 仙境에 대한 동경과 은거에 대한 욕망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가을철 만날 때마다 밝은 달은 읊조리어라, 귀거래사를 지으려고 친구를 생각하네. 후일 야천에다 집 짓고 살게 되면은, 염소갓옷이 의당 바닷가에 있으리라.”⁵⁰⁾라고 하여 도연명처럼 귀거래를 꿈꾸며 後漢의 嚴光처럼 갓옷을 입고 강가에서 낚시질하는 隱居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시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김종직은 겸선과 사월 초과 일에 남산에 올라 관등을 하고 시(『四月八日夜與兼善登南山脚觀燈時兩宮與世子在圓覺寺作法事』)를 남기기도 한다.

김일손의 첫 산수유람은 1481년 18세에 남효온과 함께 龍門山을 유람하게 된다. 그 뒤 그는 1487년 24세에도 남효온과 함께 坡平 南谷의 명산을 열흘 동안 유람하였다. 이때의 산수유람을 기록으로 남겼지만 소실되었다. 김일손의 山水에 대한 생각은 『釣賢堂記』에 “나는 어릴 때부터 山水를 너무 좋아하는 山水癖이 있었다(余自髫髻 性癖林泉).”라고 한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김일손은 신용개·강혼·이희순·최숙생 등 10인과 용산 폐사를 수리한 독서당에서 사가독서⁵¹⁾를 하였다. 김종직은 사가독서를 하는 이들과 仙遊를 하면서 독서공간에 대한 애찬과 그 즐거움에 관해 시를 남기기도 하

50) 김종직, 『점필재집』 시집 1, 『和善源在星州見寄』, “每當搖落吟明月, 欲賦歸來憶故人, 他日 椰川容卜築, 羊裘合在海東濱.”

51) 사가독서와 독서당의 문학 활동에 관한 논의는 이종목, 『사가독서제와 독서당에서의 문학 활동』(『한국한시연구』8, 2000, pp.5-44. 참조바람.)에 잘 나타나고 있다.

였다. 김일손은 이 당시에 「書六絃背」·「秋懷賦」·「管處士墓誌銘」 등을 창작하게 된다. 그는 산수유람과 독서, 문학창작을 동시에 일궈내고 있었다.

산수유람의 출발점은 초기 士林派 이전에도 일어나고 있었지만 산수유람의 본격적인 그 출발점은 그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士林은 산수유람을 하고 기록을 남기거나 시로 형상화하고 있었다. 山寺와 仙境이 그 중심 공간과 소재로 작용한다. 山寺와 仙境은 초기 士林派의 기록의 대상이었고 그 기록은 後學의 산수유람의 길잡이 역할을 하거나 그들의 유람을 좇아 향유하는 공간으로 작용하게 된다.

초기 士林派의 山寺와 仙境은 산수유람과 문학을 창작하는 공간 및 향유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仙境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기도 하고 직접 山寺에서 이뤄지는 놀이를 체험하고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또 山寺와 仙境에서 다수의 작품과 생애 최고의 작품을 창작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동경의 대상을 직접 유람하거나 逍遙하여 그때의 감화를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Ⅲ. 士林派의 同人 및 학단 형성

遊山의 경우, 강좌지역 안동권의 퇴계학파는 주로 소백산과 청량산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강우지역 진주권의 남명학파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강안지역 성주권의 한강학파는 가야산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들 학파는 산을 오르면서 학파적 결속을 다졌고, 이를 통해 영남의 선비문화를 고양시켜 나갔다.⁵²⁾

초기 士林派는 山水를 탐닉하고 逍遙하였다. 그들은 산수유람을 통해

山寺와 仙境에 대한 공간인식을 가졌다. 先賢의 독서 및 수양처, 은일처, 문학창작처로 인식하며 그들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즉, 士林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강학 및 소요하는 문화공간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후기 士林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士林派의 同人과 학단을 형성한 모습을 살펴보자.

(가) 明은 詩를 잘 읊고 나팔 불기를 좋아하였으므로 佔畢公이 항상 그를 螺花尙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 그리고 나서 벽 위를 두루 살펴보니 그 곳에는 四佳 徐居正·波澄 金孟性·高陽 兪好仁·新昌 表沿沫과 嵩善 金宗裕가 지은 시판이 걸려 있었다. 모두 당대의 賢者로 국가의 융성함을 시로 잘 읊어 大雅의 高風을 떨쳤다. 그 중 우리 점필공이 螺花尙과 왕복한 詩筒이 제일 많아 더욱 기뻐다.⁵²⁾

(나) 그 판잣집 들보에는 紙錢이 어지러이 걸려 있었다. 또 “嵩善 金宗直 季溫·高陽 兪好仁 克己·夏山 曹偉 太虛가 成化 임진년(1472) 중 추월에 함께 오르다.”라고 쓴 몇 글자가 있었다. 일찍이 遊覽한 사람들의 성명을 차례로 훑어보니, 당대 걸출한 사람들이 많았다.⁵⁴⁾

(가)는 가야산을 유람한 기록, 『釣賢堂記』이고 (나)는 지리산을 유람한 기록, 『續頭流錄』이다. 『속동문선』과 규장각 소장본에는 『續頭流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는 스승 김종직이 지리산을 유람하고 남긴 『遊頭

52) 정우락, 「조선후기 ‘문화공간-영남’에 대한 한문학적 독해」, 『어문론총』57, 한국문화언어학회, 2012, p.334.

53) 김일손, 『탁영집』3, 『釣賢堂記』, “明解吟詩, 喜吹螺, 佔畢公每稱螺和尙, … 因周覽壁上, 有四佳徐相國居正, 波澄金先生孟性, 高陽兪先生好仁, 新昌表先生沿沫, 嵩善金君宗裕所題詩板.”

54) 김일손, 『탁영집』5, 『續頭流錄』, “紙錢亂掛屋樑, 有嵩善金宗直季溫, 高陽兪好仁克己, 夏山曹偉太虛, 成化壬辰中秋日同登, 若干字, 歷觀曾遊人姓名, 多當世之傑也.”

流錄』의 속편을 지칭하기도 한다. 김종직이 1472년 지리산을 유람을 했듯이 김일손의 지리산 유람은 스승의 발자취를 쫓아가고자 한 것이다. 김종직이 군수로 있을 적에 비를 빌고 齋宿하던 곳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에 대한 존숭과 흠모가 충만함을 알 수 있다. 김일손은 김종직의 문하이다. 편액의 同人과 산수유람을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 즐거움은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다) 滄波萬頃櫓聲柔 푸른 물결 드넓고 노 젓는 소리 부드러운데,
滿袖清風却似秋 소매 가득 맑은 바람 도리어 가을 같아라.
回首更看眞面好 고개 돌려 다시 보니 그 참모습 아름다운데,
閒雲無跡過頭流 한가한 구름은 자취도 없이 두류봉을 지나가네.⁵⁵⁾

(라) 風蒲獵獵弄輕柔 바람 탄 부들 잎 나불나불 하느작거리니,
四月花開麥已秋 사월이라 화가에 보리 이미 가을이네.
看盡頭流千萬疊 두류산 천만 겹을 남김없이 다 구경하고,
孤舟又下大江流 외론 배로 또 큰 강을 따라 가노라.⁵⁶⁾

김일손은 정여창과 지리산 유람을 마치며 악양성에 이르러 배를 타고 강 아래로 내려가며 배안에서 시를 지었다. 김일손과 정여창은 산수유람을 통해 도학지기의 정분을 발현하고 있었다. 또 성현처럼 산과 물을 통해 仁과 智⁵⁷⁾를 얘기하고 산수유람의 공간을 통해 同人형성 및 호연한 기상을 함양하는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성호 또한 “끝 글귀의 收殺가 매우 좋으니

55) 김일손, 『탁영집』續 上, 「與鄭伯勛同遊頭流歸泛岳陽湖」.

56) 정여창, 『일두집』1, 「岳陽」.

57) 『논어』, 「雍也」,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참조.

이야말로 白癩補臉의 숨씨라 하겠다.”⁵⁸⁾라고 하여 극찬을 하였다.

정여창은 “학문이란 성인을 배우는 것이요, 뜻을 둔다는 것은 그 배움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뜻을 세워 강하고 굳세게 그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일손·정여창·김굉필은 도학으로 형성된 도학지기이다. 김일손의 산수유람은 이러한 도학과 문장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고 이를 통해 도학의 문에 들어가 後賢에게 존숭의 대상이 되었다.

똑같이 밝은 종류의 빛은 서로를 비추어 주고 같은 종류의 물건끼리는 서로 어울린다.⁵⁹⁾ 김일손·정여창은 서로 어울려 서로에게 밝은 빛을 비추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靑雲之士가 되어 후세에 그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손의 지리산과 가야산의 同遊者는 정여창과 김굉필이다. 정여창과 김굉필은 김종직의 제자이고 특히 김굉필은 『소학』에 심취해 ‘小學童子’로 불렸다. 김일손은 1480년 17세에 김종직의 문하에서 수학하기 시작하면서 이들과 道義로서 교유하였다. 김종직 제자 중 문장으로서 姜渾·李胄, 遺逸으로서 남효온·辛永禧, 音律으로서 李摠·李貞恩 등의 정신적 교유가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지리산과 가야산 유람의 同遊者는 정여창과 김굉필이었다. 同人, 김일손·정여창·김굉필은 道義로서 교유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산수유람을 통해 김종직의 문하생들과 從遊했음을 알 수 있다.

김일손의 同人과의 즐거움은 周易 同人卦⁶⁰⁾에서 말한바와 같은 즐거움이다. 즉 ‘同人’의 ‘同’은 ‘和’와 대립된 확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

58) 이익, 『성호사설』28, 「詩文門」 「鄭一蠹詩」.

59) 『사기영선』, 「백이전」, “同明相照, 同類相求.”

60) 『주역』 64괘 중 13번째 괘명으로 ‘同人’은 ‘사람들과 같이하다.’라고 풀이할 수 있으며, 同人卦는 세상 사람들이 함께 화합하며 살아가는 대동사회를 건설하는 방도를 제시한 괘라고 할 수 있다.

화의 뜻까지 포함된 ‘같이 하다’, ‘함께 하다’의 의미로 山水를 즐기고 있는 同人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同人意識이 戊午土禍의 난에서는 김일손·權五福·李穆·許盤·權景裕 등은 先王을 誣錄한 죄를 씌워 죽이고, 정여창·姜謙·李守恭·鄭承祖·洪潁·鄭希良 등은 난을 고하지 않은 죄로, 김굉필·李宗準·李胄·朴漢柱·任熙載·姜伯珍 등은 김종직의 제자⁶¹⁾로서 봉당을 이루어 弔義帝文의 삽입을 방조한 죄로 귀양을 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士林은 더욱 성장하고 결집하게 된다. 士林의 성장과 결집은 山寺와 仙境을 함께 從遊했기 때문이다. 그 성장의 기저에 산수유람이 있었던 것이다. 산수유람을 통해 선현에게 귀의하고 그 본받을 점을 각인하게 된 것이다. 士林의 會sum의 장소로 山寺와 仙境이 주요한 공간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 공간에서 일어난 강학과 학문탐구는 더욱 깊이 학문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다음으로 초기 士林派의 山寺와 仙境에 대한 인식과 향유는 다음 세대로 그대로 이어져 새로운 학단을 마련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남명학파는 지리산 인근의 사찰과 仙境을 찾아다니며 산수유람과 독서 및 강학이 자연스레 이뤄졌으며 나아가 문학창작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남명 제자, 몇몇의 인물을 통해 그 대표적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61) 金宗直의 제자 및 문인은 “金孟性·鄭汝昌·金宏弼·曹偉·南孝溫·金駟孫·權五福·兪好仁·朴漢柱·李福·李胄·李承彦·元槩·李鐵均·郭承華·姜訢·權景裕·李穆·姜景敍·李守恭·鄭希良·盧祖同·姜希孟·任熙載·李繼孟·姜謙·洪翰·武豐副正摠·鄭承祖·康伯珍·康仲珍·金訢·金用石·洪裕孫·李宗準·崔溥·表沿末·安遇·許磐·柳順汀·鄭世麟·禹善言·辛永禧·孫孝祖·金驥孫·姜渾·周允昌·方有寧·楊浚(『佔畢齋集』, 『門人錄』).”과 같다.

月在西南雪擁扉 달은 서남쪽에 있고 눈은 사립문 둘러싼 가운데,
 上房鍾磬響遲遲 대청의 종경소리 느릿느릿 계속된다.
 青松翠竹山前後 푸른 소나무와 비취 대나무는 산 앞뒤로 있으니,
 正是幽人獨立時 바야흐로 지금이 은자 홀로 있는 시간.⁶²⁾

龜巖 李楨(1512-1571)은 44세 때(1566) 봄에 노진, 강익 등과 함께 남명을 모시고 임훈을 방문하고 옥산동을 유람하였다.⁶³⁾ 이 해에 이정은 金宇顥·盧禎·鄭惟明·鄭述·趙宗道 등과 함께 남명을 모시고 단속사에서 산천재로 모였다.⁶⁴⁾ 이정의 문집 많이 산일되어 위의 시가 정확히 어느 때에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단속사에 대한 정경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정은 밤사이 눈이 내리다 새로 개인 모습, 光風霽月의 단속사를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대청의 종경소리, 소나무와 대나무의 정경이 隱者가 홀로 수양하기 좋은 단속사를 묘사하고 있다. 이정은 『獨坐』에서도 “바람 부니 소나무는 음악을 연주하고, 달뜨니 대나무는 금빛으로 찬란하다. … 조용한 가운데 하늘의 조화 움직이니, 산을 마주보며 또 한수 읊조린다.”⁶⁵⁾라고 하여 홀로 앉아서 자연을 벗 삼아 천리를 느끼며 심신을 수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단속사는 隱者가 은일하여 수양하는 곳으로 적당한 곳임을 확인할 수 있다.

62) 이정, 『구암집』續集 1, 『宿斷俗寺夜雪新霽月色如畫』.

63) 『남명선생 행장 및 사적』, 남명학연구원, 2012, p.36. 참조

64) 이광우, 『죽각집』2, 『年譜』, “時李龜巖, 金東岡, 河覺齋, 盧玉溪禎, 姜介庵翼, 鄭崐陽惟明, 鄭寒岡述, 趙大笑軒宗道, 諸賢陪, 老先生, 自斷俗寺, 皆會于山天齋, 先生聞而喜之即日陪, 伯父清香先生, 往與諸賢, 講討經義, 數日而罷.” 참조

65) 이정, 『구암집』續集 1, 『獨坐』, “風到松彈曲, 月來竹碎金, … 靜裏天機動, 對山復一吟.”

遙待佳人歲暮時 세모에 멀리서 선생을 기다리는데,
却嫌寒雨濕荷衣 찬비가 은자의 옷을 적실까 원망스럽네.
雲深石逕苔痕滑 구름 깊은 돌길에 이끼도 미끄러우니,
還向桃川倚竹扉 도화 뜰 내를 향해 사립문에 기대섰네.⁶⁶⁾

德溪 吳健(1521-1574)은 33세(1553)에 노진, 강익 등과 지리산을 유람하였고, 45세(1565)에 남명을 따라 지곡사를 유람하게 된다. 이때 지곡사에서 오건이 남명을 기다리며 지은 시, 『智谷寺留待南冥先生』이다. 荷衣는 연잎을 곁어 만든 옷으로 세속을 초월한 사람, 隱士가 입는 옷이다. 오건은 隱士, 桃花, 竹扉 등을 통해 지곡사의 정경을 무릉도원 및 隱士의 은일공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吳俊·吳倪·吳倬·禹致績, 都希齡·權文任·鄭構 등 지곡사에 모여 산수유람을 하게 된다. 나아가 斷俗寺로 장소를 옮겨 敬義를 강론하기도 한다. 남명학파의 山寺는 현실적인 유람의 대상, 은일 지향의 대상, 나아가 강학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오건의 『智谷寺示同棲諸君子』를 살펴보자.

仰看蒼翠俯清流 푸른 하늘을 우러러보고 맑은 강을 굽어보니,
仁智難充愧自修 인과 지 충만하지 못한 자신의 수양 부끄럽네.
一洞雲霞方丈近 온 골짜기 가득한 노을 방장산이 가깝고,
半窓身世武陵幽 창에 기댄 내 신세는 무릉처럼 깊숙하네.
爲牽謾興吟花下 여러분 덕에 흥이 나 꽃 아래서 시를 읊고,
要寫幽懷向水頭 그윽한 회포 풀기 위해 물가로 향하네.
不是漁郎迷處所 어부가 아니면 길을 잃을 곳이니,
但期煙樹鶴無謀 운무 낀 숲이면 되지 학은 바라지 않네.⁶⁷⁾

66) 오건, 『덕계집』1, 『智谷寺留待南冥先生』.

67) 오건, 『덕계집』1, 『智谷寺示同棲諸君子』.

오건은 자신의 수양에 대한 부끄러움을 同人에게 말하여 학문의 구체적 단계론을 제시하고 있다. 방장산과 무릉을 동경하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 同人과 노니는 여유를 강조하고 있다. 『桃花源記』의 어부를 지향하지만 신선, 학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즉, 무릉도원과 거리감이 느껴져 현실 속에서 이상을 찾아가고자 하는 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오건의 『請進學納諫疏』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바다. “군주가 학문을 향상시키는 것은 반드시 뜻을 겸손히 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고, 諫言을 받아들이는 것은 반드시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라고 하여 현실정치에 대한 간언을 청하고 있었다. 그 전거도 『대학장구』·『맹자』·『중용장구』·『서경』·『주역』·『사기』·『한서』를 인용하여 간언을 올리고 있었다.

士林은 훈구세력과 맞서고 그들만의 학풍을 기르기 위해 도학자의 길을 선택하였다. 비록 출사를 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구도자의 길을 간 것이다. 훈구와 대척하기 위해서도 결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 중심에 山寺와 仙境이라는 공간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들의 산수유람은 士林의 결집을 확인하거나 확고히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이 정권의 전면에서 나서는 이후의 유람은 이러한 경향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조선 후기의 산수유람과 비교를 하면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초기 士林派는 山寺와 仙境을 통해 同人과 학단을 형성하였다. 나아가 후기 士林에게 전범이 되는 문화를 형성하였다. 그 문화의 형성과 전개는 김종직의 문하, 김일손과 남효온의 同人과의 산수유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정과 오건이 스승, 남명을 모시고 회합하고 산수유람을 즐기는 모습에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특정 지역의 同人과 지리산 유람문화를 양성해 주위의 賢者를 자연스레 이끌어 同人을 형성할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풍류적 문화공간을 형성 및 전개하였다.

IV. 결론

본고는 초기 士林派, 김종직·남효온·김일손·정여창의 산수유람에 초점을 두었다. 그들이 유람을 하고 남긴 작품은 산수유기와 기행시로 나타나고 있었다. 작품에 나타나는 山寺와 仙境에 대한 공간인식은 다양하고 이채로웠다.

초기 士林派는 산수유람을 즐기고 있었고, 특히 山寺와 仙境의 아름다운 곳에서 逍遙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들이 바라본 山寺와 仙境은 먼저 최치원과 先賢의 독서 및 수양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직접 先賢의 유적과 자취를 답사하였고 존경과 숭모의식이 생겨나 그 경지에 나아가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山寺와 仙境을 賢人의 은일공간으로 인식하였다. 賢人은 隱者·高僧·賢士 등이 있었고 각각의 학문에 대한 순수성, 전일성을 쫓아가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山寺와 仙境을 산수유람과 문학창작의 향유공간으로 인식하였다. 초기 士林派의 산수유람의 목적과 동기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초기 士林派의 山寺와 仙境 유람은 士林을 결집시키고 성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훈구 세력과의 대척점에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살아남고자 하는 문화를 형성한 것이다. 학문탐구의 진지함과 실천이 山寺와 仙境을 바라보는 인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 士林派는 긴장적 분위기를 해소하여 이완적 분위기도 형성했다. 아름다운 산수를 유람하고 문학을 창작하여 생애의 결작을 남기는 여유도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초기 士林派의 공간인식은 후진 士林에게도 영향을 미쳐 山寺

와 仙境을 통해 同人과 학단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었다. 초기 士林派는 산수유람을 통해 同人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와 학문을 논하고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 山水를 통해 그들만의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풍류⁶⁸⁾를 즐겼고 학단을 형성하였다. 남명의 제자가 스승을 모시고 회합하여 逍遙하거나 학문을 논한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았다.

본 논의를 통한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산수유기는 영남지역, 청량산·가야산·지리산 등에서 수많은 기록이 존재한다. 여기에 관련된 기행시를 첨가한다면 그 수는 더욱 방대해 질 것이다. 첫째, 전체적인 자료를 통해 총괄적인 山寺와 仙境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山寺와 仙境에 대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영남과 기타 지역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금강산 관련 산수유기와 백두산 관련 산수유기는 분명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士林派 및 사대부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각 시기별 山寺와 仙境에 관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士林派의 태동기와 절정기, 그리고 쇠퇴기를 비교하면 분명 차별성이 존재할 것이다. 보편적인 사항 또한 존재할 것이며 그 경향성을 파악한다면 士林派의 산수유기와 기행시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이상의 남은 과제는 山寺와 仙境의 공간을 통해 士林派의 山水 문화공간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68) 여기서 풍류는 긴수작과 한수작의 풍류를 함께 즐겼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풍류에 관한 논의는 정우락,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방식과 문화공간 만들기』(『퇴계학논집』 15, 영남퇴계학연구원, 2014, pp.177-217.) 참조바람.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국역 『국조인물고』

김일손, 『탁영집』

김종직, 『점필재집』

남효온, 『추강집』

백락천, 『백향산시집』

오 진, 『덕계집』

이 익, 『성호사설』

이 정, 『구암집』

이광우, 『죽각집』

이규보, 『동국이상국문집』

정여창, 『일두집』

조 위, 『매계집』

한 유, 『한창려집』

허 목, 『기언』

『근사록』

『논어』

『사기영선』

『신증동국여지승람』

『예기』

『주역』

『해동잡록』

2. 논문 및 단행본

강정화, 「선현들의 청학동 유람」, 『선비문화』22, 남명학연구원, 2012, pp.122-134.

김갑기, 「문화공간으로서의 사찰-사찰제영시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35, 한국사상문화학회, 2006, pp.243-261.

김동협, 「15-16 세기 지리산 遊覽錄에 나타난 靑鶴洞」, 『語文論集』56, 중앙어문학회, 2013, pp.127-147.

- 김종구, 『유산기에 나타난 유산과 독서의 상관성과 그 의미』, 『어문론총』51, 한국문화언어학회, 2009, pp.125-157.
- 남명학연구원, 『남명선생 행장 및 사적』, 동방사, 2012.
- 박용국, 『지리산 단속사, 그 끊지 못한 천년의 이야기』, 보고사, 2010.
- 박인희, 『신충패관과 원가연구』, 『신라문화』2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6, pp.299-321.
- 손찬식, 『靑鶴洞 詩에 表象된 神仙思想』, 『인문학연구』86,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pp.57-89.
- _____, 『추강 남효온의 시세계』, 『어문논집』33, 민족어문학회, 1994, pp.279-307.
- 송희준, 『단속사의 창건 이후 역사와 폐사과정』, 『남명학연구』9,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9, pp.399-425.
- 신종원, 『『삼국유사』 신충패관조의 몇 가지 문제』,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3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0, pp.47-67.
- 이기백, 『경덕왕과 단속사·원가』,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pp.216-226.
- 이민홍, 『사림파의 한문학과 성정미학』, 『대동문화연구』2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992, pp.23-47.
- 이승남, 『삼국유사 신충패관조에 나타난 일연의 서사적 시각』, 『한국사상과 문화』40,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pp.45-68.
- 이종묵, 『사가독서제와 독서당에서의 문학 활동』, 『한국한시연구』8, 2000, pp.5-44.
- _____, 『『삼국유사』 『신충패관』조의 ‘전 삼국사’에 대하여』, 『한국고대사연구』14, 한국고대사학회, 1998, pp.447-466.
- 정우락, 『조선시대 ‘문화공간-영남’에 대한 한문학적 독해』, 『어문론총』57, 한국문화언어학회, 2012, pp.323-354.
- _____,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방식과 문화공간 만들기』, 『퇴계학논집』15, 영남퇴계학연구원, 2014, pp.177-217.
- _____, 『남명학파의 문학적 상상력』, 역락, 2009.

Abstract

The Perception of the Mountain Temple and the Perception of Immortal Land by the Sarimpa's Literature in Early Joseon Dynasty
- By focusing on Sansu-Yugi (山水遊記) and Travel-Poems -

Kim, Jong-Gu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ountain temples and the perception of immortal land of the Sarimpa's literature in early Joseon Dynasty by focusing on the Sansuyugi(山水遊記) and travel-poetry to draw the meaning.

The Sarimpa's Literature in Early Choson Dynasty recognises temples in the mountain and immortal land as the reading and discipline space of Choi Chi-Won and SeonHyeon. In sequence, such space was recognized as the secluded space of the wise. Lastly, it was recognized as the space for the Excursions to Mountains and Rivers and literary creation.

The mountain temples and the perceptions of immortal land in the early Joseon Dynasty came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later Sarimpa literature. Members of a literary coterie were associated by the unity and poetical cultural space and learning group were formed.

Key Word : the Sarimpa's Literature in Early Choson Dynasty, mountain temple, the perception of immortal land, Sansu-Yugi, Travel-poetry, reading and discipline space, secluded space, Literary coterie

김종구

소속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자우편 : piny0928@hanmail.net

이 논문은 2015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5년 8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8월 10일 게재 확정됨.